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2008학년도 학위전수식
* 일시 : 2009. 2. 28(토) 11:00
* 장소 : 지역대학 대강당

제1830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2월 25일 (음력 2월 1일) 수요일

광주도시鐵 2호선 '가시밭鐵'

주민들 '남북형' 집단 반발로 노선 결정 유보

박광태 시장 "의견 충분히 수렴 후 결정"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노선 확정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에 노선결정 유보 방침을 밝히는 등 도시철도 건설 사업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시가 기존 순환형 노선의 대안으로 남북형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 광주 서구와 광산 지역 주민들이 도시를 순환하는 기존 노선의 채택을 촉구하며 집단 반발, 노선 확정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용역 검토를 거쳐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기존 '순환형' 노선을 포함해 '남북형' 2개 노선으로 압축했다.

'순환형'은 총연장 22.1㎞로 백운광장~남광주역~광주역~터미널~시청~상무역~백운광장~효천역 등 도심을 고리형으로 순회하는 노선이다. 남북형은 총연장 24.58㎞로 효천역~백운광장~조선대~전남대~첨단을 가로지르는 노선이다.

시는 지난 2002년 건교부가 확정 고시한 순환형 노선이 장기적으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선을 재검토, 남북형 노선을 도출했다.

그러나 시가 남북형 노선을 채택할 경우 노선에서 제외되는 서구와 광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지난 19일 열린 '도시철도 노선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서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반대 추진위원회'는 "광주의 주요 인구이동과 인구 밀집도, 도시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순환형 노선이다"며 기존 순환형 노선의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시철도 노선에 해당 지역이 포함될 경우 역세권 형성 등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광주시는 24일 노선 결정 유보 방침을 밝히는 등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15년 전 결정된 도시계획대로 노선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인식이 잘못된 사람이다"며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40~50년 후를 내다보고 결정돼야 할 사안이 지역이기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말까지 2호선 노선을 최종 결정한 뒤 다음 달 시민공청회, 4월 중 정부에 2호선 기본계획을 신청하기로 한 2호선 노선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시는 노선이 순조롭게 확정될 경우 내년 2호선 노선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착수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강왕기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은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강행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t

부패방지 손놓은 광주시·전남도

광역자치단체 중 두 곳만 '미흡' 평가

광주시와 전남도·전남도교육청이 부패방지 시책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미진한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광주시와 전남도 2곳뿐이어서 부패방지 시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기관장 노력도 ▲제도 개선 ▲반부패 시책의 효율성과 적절성 ▲공직자 행동강령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을 조사해 '2008년도 반부패 시책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5개 기관 중 하위 20%에 속해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2곳이었다. 시·도 교육청은 전남·전북·경북·제주 교육청 등 4곳이 미흡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미흡으로 평가된 부처 및 위원회는 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통일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등 7개 기관이었다.

또 청 단위 기관은 경찰청·문화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법무부·관세청·병무청·부산시·경기도·경기교육청·대전교육청은 상위 20%에 들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3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서는 광주시 교육청이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남도 교육청은 '보통',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우수'로 평가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구분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우수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기, 대전
보통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미흡	**광주시, 전라남도**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앞 뒤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 일 시 : 2009년 3월1일(일) 오전 9시
• 장 소 : 광주월드컵 경기장 ~ 남평교
• 문 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
•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 후 원 : 광주지방보훈청,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
• 협 찬 : 광주은행 KB 국민은행 TrekSta SK telecom 조선대학교 KTF 강진군

"北 미사일 발사 준비 곧 완료"

북한은 24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해 대포동 2호 발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관련기사 5면〉

그러나 정부 당국은 대포동 2호를 발사대로 옮기거나 연료를 주입하는 등 발사가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발사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현재 무수단리 기지에서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해 미사일 발사 이후 궤적과 탄착지점 탐지를 위한 레이더와 계측장비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평가할 때 빠르면 1~2주에 (준비작업이)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